

회의자료

2024년 7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목 차

I. 한돈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 활동사항	3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대응 경과	3
2. 지도자 연수회 및 청년분과위원회 세미나 개최 결과 ...	5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및 대응현황	7
4. 양돈질병 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9
5.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및 시비처방서 관련 대응 현황	10
6. 수입육 증가에 따른 한돈산업 보호 대책 건의	11
7.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경과	14
8. 한돈혁신센터 운영 보고	15
<별첨> 협회 현황(조직 및 직원 현황)	17

I. 한돈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 활동사항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대응 경과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기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의 ‘축사’ 철거·이전을 강요하는 민원에 시달려 폐업하는 농가 사례 다수 발생
- 지구 지정시, 철거·이전 요구하는 지역사회와 축산인 간 심각한 갈등* 유발
* 지역주민 집단행동으로 보상금 줄 때 축산업 포기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
- ☞ 이전·철거 등에 대한 지원 없이 「시행규칙」 제정·시행될 경우, 농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국적인 ‘축사 몰아내기’로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나. 본회 대응 활동

-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의견 제출 및 협의
 - (한돈협회 의견) ① ‘농촌위해시설’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축산시설 제외, ② 이전·철거 등 지원 근거 마련 의견 제출
 -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 법제처 법령심사 대응 및 협의(2월~6월)

다. 대응결과(한돈협회 요구사항 반영)

- 시행규칙 공포(5/30)
 -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시설 제외 ※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농가는 포함
 - 축사 이전 시 부지알선 및 행정적·재정적(이전, 철거 비용 등) 지원 근거 마련
-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 지자체장,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 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 마련 계획 수립
- ☞ 축산 농가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축산 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강제이전이나 철거 방지

라. 향후 계획

- 기존 추진중인 농촌공간정비 시범사업에도 부지알선·재정적 지원 등 적용 요구

<지침 주요 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7절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정비·관리 부문

5-7-1. 목적 및 대상

(1) 농촌정주여건, 경관 및 환경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해 농촌환경관리시설과 농촌위해시설에 관련된 정보(분포, 피해발생현황 등)를 수집·축적하고, 필요시 정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정비·관리는 현황 조사, 주민의견 수렴, 계획 수립, 시설개선 지원, 시설의 이전 및 집단화 지원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5-7-2. 수립방향

(1)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2) (1)의 경우,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주민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의 신규 진입을 예방하고, 이전 대상지에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3)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집단화를 위해 국비를 활용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총사업비(매칭지방비 포함) 이외에 지방비(매칭지방비 제외)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 기반조성, 친환경·스마트 축산 육성 지원, 에너지시설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한다.

(5) 시·군의 농촌공간 토지이용 실태와 도시·군 관리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고, 정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법에 정한 절차나 방법,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가. 지도자 연수회

- 일시 및 장소 : 2024. 5. 21(화) 11:00 ~ 16:30 /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 참석자 : 전국 한돈협회 임원 및 관계자 등 160여명
- 목적 : 대한한돈협회 전국 한돈 지도자 경쟁력 제고·단합력 강화 및 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 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한돈 정책 수립 및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세미나 주요 내용
 - 1) 24년도 한돈분야 정책방향(이재승 축산경영과 사무관)
 - 경영 부담 완화·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산업발전 정책 소개
 - 악취저감 및 경영·환경 관리 강화 방안
 - 2) 축산환경 정책방향(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 과장)
 - 축산업 현황과 환경관리 실태
 -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가 전략
 - 3) 양돈질병(FMD,ASF) 방역대책(김지호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 구제역 및 ASF 발생 시 조치 사항 및 방역 수칙 등
 - 농가 단위 차단방역 적극 협조 요청
- 주요 사진



나. 청년분과위원회 소통 강화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2024.6.12(수) 13:00~16:00 /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 참석자 : 청년한돈인, 한돈농가 및 관계자 등 90여명
- 목적 : 부모·자녀 및 지역조직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강으로 경쟁력 강화
- 세미나 주요 내용
 - 1) ASF 발생현황 및 방역정책(농식품부 이주원 사무관)
 - ASF 발생에 따른 농장 차원의 차단 방역 강화 당부
 - 2) 청년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하반기 추진계획(청년분과 한동윤 위원장)
 - 청년분과 활성화 위한 활동과 운영에 적극 협조
 - 도·지부단위 청년분과 구성 및 운영 추진 요청
 - 3) 지부 청년분과위원회 활동 우수 사례(영천, 순천)
 - 지역 교류 참여 및 활성화,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유대감 확대
 - 우수 활동 사례 공유
 - 4)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는 즐거운 소통(동아방송대 정은이 교수)
- 세미나 사진



가. 국내 양돈농장 ASF 발생현황 : 총 44건

□ '24년 발생현황 : 6건 (경북 영덕1/16,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6/15),
경북 안동7/2, 경북 예천7/7)

- * (19년) 총 14건 : 경기 9(파주 5, 연천 2, 김포 2), 인천 5(강화 5)
 (20년) 총 2건 : 강원 2(화천 2)
 (21년) 총 5건 : 강원 5(영월 1, 고성 1, 인제 2, 흥천 1)
 (22년) 총 7건 : 경기 2(김포 1, 파주 1), 강원 5(흥천 1, 양구 1, 춘천 2, 철원 1)
 (23년) 총 10건 : 경기 6(포천 5, 김포 1), 강원 4(철원 2, 양양 1, 화천 1)

연번	구분	신고일(채취일)	시도	시군구	사육두수(두)	사육형태	신고사항(폐사 등)
39차 (24년1차)	신고	2024.1.15	경북	영덕군	499	일관	모돈 9두, 비육돈 40두 폐사 (1.8~1.16. 49두)
40차 (24년2차)	신고	2024.1.18	경기	파주시	2,375	일관	사료접취부진, 모돈 폐사 (1.16~1.18. 19두)
41차 (24년3차)	신고	2024.5.21	강원	철원군	1,577	비육	비육돈 40두 폐사 (5.11.~5.21. 40두)
42차 (24년4차)	신고	2024.6.15	경북	영천시	25,900	일관	모돈 13두 폐사 (6.11.~6.15. 13두)
43차 (24년5차)	신고	2024.7.2	경북	안동시	193	일관(혹돼지)	모돈 8두, 웅돈 2두 폐사 (6.30.~7.2. 10두)
44차 (24년6차)	신고	2024.7.6	경북	예천시	961	일관	모돈 4두 폐사 (7.5~7.6 4두)

가. 본회 대응경과

- 역학농장 출하 건의 및 해소 (SOP 개정 반영)
 - 도축장 역학(7일), 농장역학(14일), 방역대(21일) 출하
- 1유형 농가 역학 우선 제외 지원
 - SOP에 따라 1유형 농가의 경우 차량 및 사람이 진입하지 않았으므로 역학 사유 미발생
- 도축장 역학 농가 지정도축장 확대 요청
 - 기존 4개 지정 도축장(안동축산물공판장, 소백산 한우, 고령공판장, 민속엘피씨)
 - 3개 지정도축장 추가(구미칠곡축협, 삼세, 경진산업)
- 농장역학 및 방역대 농가 출하 일령 단축 건의
 - 농장역학 : 14일 → 설명절 고려, 1~2일이라도 단축 요청(1월 파주, 영덕 발생 건)
 - 방역대 : 21일 → 14일로 단축
- 파주 공동처리장(2개소) 이동제한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해소 건의 등
- 도축장 출하시 생축 운반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 이용 제외

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및 대응

○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 4,098건(43개 시군, 6.28기준)

- (현황) 19년 10월 경기 연천 최초 발생 이후 43개 시군에서 총 4,098건 발생

* (24년) 6월 20일 대구 군위군에서 신규 (43번째)로 발생

- (추이) 19년 북서부 접경지역(연천, 철원 등) → 20년 강원 북부 중심 → 21년 강원 전역 및 충북 북부(단양, 제천) 확산 → 22년 충북 및 경북 확산 → 23~24년 경북 중심 확산, 부산 신규 발생

* 경기 674, 강원 1918, 충북 495, 경북 980, 부산 25, 대구6

○ (농식품부·환경부 멧돼지 대책 요구) ASF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건의(환경부 6.17), 야생멧돼지 75% 개체수 저감·서식밀도 0.7/km² 유지 요청

○ 야생멧돼지 확산 저지를 위한 포획비용 지원 사업 (23년 사업)

① 남한강 이남(5개 시군) : 양평, 여주, 이천, 음성, 괴산

② 보은·상주 이남(4개 시군) : 옥천, 영동, 무주, 김천

③ 서식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연천·화천 등 접경지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 사업포획단 운영 사업 진행 (23년 사업)

- 포획단 운영 :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인근 지역(청송, 김천, 옥천, 영동)

*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23년 한돈자조금 지원, 전년말 3,371여 마리 포획

라. ASF 백신 개발 진행사항 점검 회의 개최 예정(7/24)

○ ASF 백신 개발 진행사항 점검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등

가. 회의개요

- (목적)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 (일시·장소) 2024. 5. 13(월) 16시 ~ 18시, 충남 홍성군 축산회관
- (참석자)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충남도청, 홍성군청, 대한한돈협회 관계자 등

나.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상황 점검

- (PED·PRRS) 맞춤형 농장관리를 위한 쏘 농장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추진
 - 양돈 농장 5,000여 농장 대상 PED+PRRS 모니터링 검사 추진*
 - * 24.6월~24.9월(1,270호, 전 농장의 25%), ‘25년까지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 농가(5천호) 모니터링 추진 목표
- (구제역) 이상육 발생 등으로 인한 접촉기피 해소를 위해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및 조기 현장 적용 추진
 - *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구제역대책반)에서 논의 진행중(’ 23.12)
- (돼지열병)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구용역 추진(한돈협회, ~24.7) 및 돼지열병 마커백신* 도입 및 전국 단위 농장 모니터링 방안 마련 계획

다. 한돈협회 건의 사항

- (살처분 보상금)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현재 최대 80%에서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가전법 과태료) 현행 법규상 과태료와 처벌 수준(사육중지, 폐쇄명령 등)이 충분히 높으므로 금번 개정(안)은 철회 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1)으로 암모니아 배출기준 적용 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포함
 - ☞ 축단협 건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대상 유예*, △방지시설 지원, △표준정보 제공등을 약속 받았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12.28) : 공동자원화 24년 12월말까지, 민간 퇴비장 25년 12월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암모니아 기준 적용 유예
- (시비처방서) 환경부, 액비 살포 관리를 위해 전자인계시스템과 agrix 시스템(시비처방서 등)을 연계하여 액비 살포량 관리 추진
 - ☞ 시비처방서와 실제 액비살포량과의 차이가 커서 시스템 적용시 가축 분뇨 살포 중단 사태 발생 우려

나. 본회 대응 활동 및 대응 결과

구분	대응활동	대응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적용 관련 애로사항 전달 및 관련업계 공동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질 비료제조시설(가축분 퇴·액비화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상향 - 현장 시설투자등을 위한 법률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체(공동 자원화 등)를 대상으로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일부 상향 검토 및 소규모 시설제외 검토예정
가축분뇨 시비처방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최대 살포기준 마련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처방서가 아닌 최대살포량 기준 마련 예정(농식품부, 환경부 논의중)

다. 향후계획

- 8월 12일 민주당(이원택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및 이슈화, 대정부 대안 마련 요구

가. 수입 현황

- 2024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예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중인 가운데,
 - 5월 누계 수입량은 229,743톤('21년比 +43%, 전년比 +12%)



< 그림. 연도별 돼지고기 수입량 비교 >

- 금년 5월 기준, 냉동돈육 수입량은 전년동기比 약 12% 상승
 - '24. 5월 기준 냉동돈육 수입 누계는 214천톤('21년比 +79%, 전년比 +12%)
- 특히, 수입 냉장 돈육 수입량은 약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
 - ('15) 17,192톤 → ('18) 23,841 → ('20) 18,771 → ('22) 27,764 → ('23) 34,414
- 냉장삼겹 수입량 비교(2015년 / 2023년)하면, 캐나다산이 1.2만톤(5.3배) 증가

표. 수입국별 냉장삼겹 수입량 비교

(단위 : 톤)

구분	2015년(a)	2023년(b)	증감량(b-a)	증감율[(b-a)/a]
캐나다	2,261	14,293	12,032	+ 532%
미국	3,200	4,281	1,081	+ 33%
멕시코	3,631	3,967	336	+ 9%
칠레	1,820	20	-1,800	- 98%
기타	287	3	-284	- 99%
계	11,199	22,564	11,365(81만두분)	+ 102%

- ☞ 냉장삼겹 수입량은 캐나다산 냉장삼겹 증가량과 비례하여 상승 중이며, 5.22일부터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발동(관세율 5.1%→11.3%)

나. 정부 건의

1)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 지양

- (냉장돈육) 수입물량 급증(9,704톤/연 초과)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발동(FTA 관세법 근거) → 세이프가드에 준하는 **한돈산업 보호 위한 방어 수단 작동 유지**
- (냉동돈육) 소비둔화가 심화된 가운데 수입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12%, '21년 동기 대비 +79% → 냉동육의 무분별한 급증 방지를 위해 **할당관세를 지양**

2) 수출검역협정국 조기 확대

- 신선육 : (현재) 홍콩, 캄보디아, 몽골, UAE → (추가)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 열처리 가공육 : (현재)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추가)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3)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

- 시중 유통(음식점·유통업체 등) 수입육 전수조사 등 고강도 조치

다. 대응결과

- 농관원, 생산자 단체 간담회 개최 및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보도 자료 참조)
 - 축산물 집중단속(7/8~8/9) 이어 추석(8~9월), 김장철(11~12월) 축산물 병행 단속 계획 중

라. 향후 계획

- 한돈 수급 전망 세미나 개최
 - 참석대상 : 돈육 수입 업체, 바이어, 기자 등
 - 주요내용 : 2024년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전망(전년 대비 증가) 정보 제공
- ☞ 수입업체 하반기 돈육 수입 감소 자발적 유도

▶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

▶ 책임자 : 사무총장 조진현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3층 (대한한돈협회)

▶ 전화. 02-581-9751 Fax. 02-581-9768

▶ 담 당 : 정책기획부장 최재혁, 과장 송설경

▶ 배포일: 2024. 6. 24(월)

▶ 이메일:ksa001@chol.com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축단협 · 농관원 생산자단체 간담회(6/24)를 개최하고

오는 7.8일부터 8.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기로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6/24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생산자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물(한우, 한돈, 닭고기, 오리고기, 벌꿀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 7.8일부터 8.9일까지(32일간) 집중 단속기로 하였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년 5월까지 위반 1,676품목 중 축산물 3품목이 573건(34.1%)을 차지했다고 한다.

※ 축산물 적발 건수 순위 : ① 돼지고기 290건, ② 소고기 150건, ③ 닭고기 133건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축산물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축단협에서 농관원에 강력히 건의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여름 휴가철 육류소비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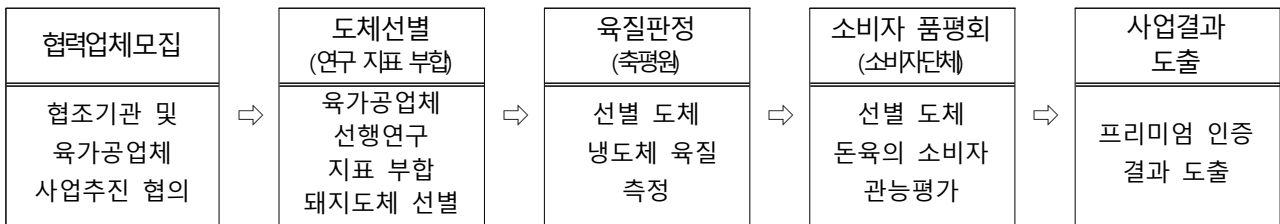
단속반은 138개반 285명(기동·일반단속반)으로 편성되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유명체인점.맛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축제장 주변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벌꿀, 식육부산물, 식육가공품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미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각 축종별 생산자 단체에서는 명예감시원을 통한 자율 점검과 둔갑판매하는 식육업소, 급식업체, 가공업체 등에 대해 농관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기로 하였다.

가. 사업개요

- 목적 : 한돈 고급화 지표 활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로, 향후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돈 품질 인증을 통한 한돈 품질 향상 도모
- 연구기관 :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 연구기간 : 2024. 6. 27. ~ 12. 26.
- 연구내용

«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흐름도 »



과업구분	세부내용
1) 돼지 품질분석장비 결과 데이터 확보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 육가공업체 섭외 ○ 돼지 품질분석장비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돼지 품질분석장비 데이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요청
2) 선행연구 고급육 지표 선별 도체 냉도체 육질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도체 육질 판정 일정 및 수립 ○ 선행연구 고급육 지표 충족 돼지 도체 선별 및 예냉 등 냉도체 육질 판정 준비 ○ 축산물품질평가원 냉도체 육질판정 요청
3) 선행연구 고급육 지표 선별 도체 소비자 품평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평가 실험군 및 대조군 돼지고기 준비 ※ 실험군 : 고급육 지표 선별 도체 ○ 소비자 품평회 개최 - 품평회 패널 구성, 평가표 작성 등 관능평가 소비자 단체 요청
4) 프리미엄 한돈 인증기준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도체 냉도체 육질 판정 및 소비자 품평회 결과 분석 ○ 프리미엄 한돈 인증기준 설정
5)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마크 등 인증제 도입 방향 ○ 모니터링 방안 등 인증제 도입시 개선점 제시

나. 향후 계획

- ('25)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 및 제도화 검토
- ('26 ~ '27)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행

1. 생산보고 및 사료, 출하현황 보고

구분	단위	4월	5월	6월	2024 1월-6월
① 모돈두수(후보돈포함)	두	248(302)	243(292)	254(311)	-
② 총사육두수(월말)	두	3,094	3,130	3,325	-
③ 분만복수	복	44	51	48	282
④ 총산자수	두	15.9	16.0	15.7	15.8
⑤ 실산자수(포유개시)	두	13.4	13.4	13.6	13.1
⑥ 이유두수	두	12.3	13.7	13.5	12.9
⑦ 사료입고량	kg	203,860	201,970	200,610	1,194,145
⑧ 사료 kg당 단가	원/kg	594.5	591.0	593.2	598.6
⑨ 비육 출하두수	두	517	584	461	3,206
⑩ 비육 출하체중	kg	118.0	118.9	116.3	117.1

2. 주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활동 사항	○ 견학																					
	<table border="1"> <thead> <tr> <th>방문일</th> <th>방문자</th> <th>견학내용</th> </tr> </thead> <tbody> <tr> <td>5/13</td> <td>전남대 동물생명자원학과 2학년 32명</td> <td>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td> </tr> <tr> <td>5/16</td> <td>고성군(양돈장 신축) 마을주민(민원인) 10명</td> <td>순환시스템, 탈취탑</td> </tr> <tr> <td>5/30</td> <td>서귀포지부(임원) 회원농가 10명</td> <td>냄새저감시설, 정화방류시설</td> </tr> <tr> <td>6/3</td> <td>충남대 대학원 축산환경과 10명</td> <td>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td> </tr> <tr> <td>6/11</td> <td>경상대 동물소재공학과 4학년 10명</td> <td>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td> </tr> <tr> <td>6/12</td> <td>서귀포 칠성양돈(돈사신축) 5명</td> <td>냄새저감시설, 정화방류시설</td> </tr> </tbody> </table>	방문일	방문자	견학내용	5/13	전남대 동물생명자원학과 2학년 32명	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	5/16	고성군(양돈장 신축) 마을주민(민원인) 10명	순환시스템, 탈취탑	5/30	서귀포지부(임원) 회원농가 10명	냄새저감시설, 정화방류시설	6/3	충남대 대학원 축산환경과 10명	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	6/11	경상대 동물소재공학과 4학년 10명	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	6/12	서귀포 칠성양돈(돈사신축) 5명	냄새저감시설, 정화방류시설
	방문일	방문자	견학내용																			
	5/13	전남대 동물생명자원학과 2학년 32명	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																			
	5/16	고성군(양돈장 신축) 마을주민(민원인) 10명	순환시스템, 탈취탑																			
	5/30	서귀포지부(임원) 회원농가 10명	냄새저감시설, 정화방류시설																			
	6/3	충남대 대학원 축산환경과 10명	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																			
	6/11	경상대 동물소재공학과 4학년 10명	돼지사양,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																			
6/12	서귀포 칠성양돈(돈사신축) 5명	냄새저감시설, 정화방류시설																				
○ 교육																						
- 2024년 첨단기술 공동실습장교육(스마트 양돈사양전문과정) 실시 : 2기(5/19~21, 6명)																						
- 2024년 축산환경실습교육(축산환경관리원 위탁) 실시 : 20명(6/27~28)																						

※ 견학, 교육, 연구사업 등 문의 : 최호윤 차장(010-2588-6684)



전남대 동물생명자원학과 2학년



서귀포지부(임원) 회원농가



충남대 대학원 축산환경과



첨단실습공동실습장 스마트 양돈사양과정 2기 교육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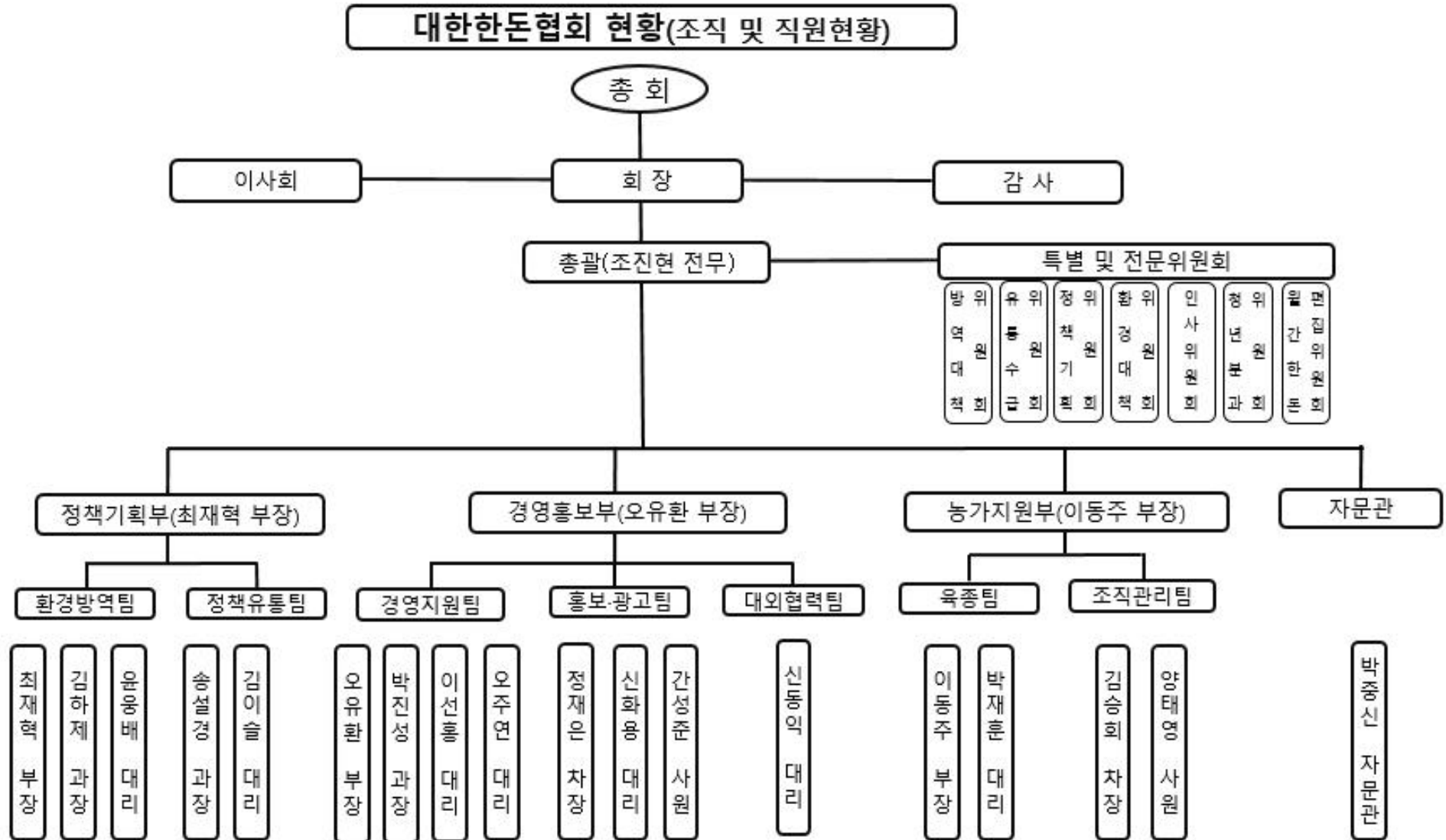


경상대 동물소재공학과 4학년



축산환경 현장실습교육

< 5월 ~ 6월 교육 · 견학 사진 >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파견 근무 : 대한한돈협회 정병일 차장